

이재욱

Jaewook Lee / b. 1984



한국예술종합학교 조형예술과 예술사, 뉴욕 스톨오브비주얼아트 아트프랙티스 전공 및 피츠버그 카네기멜론대학 순수예술 전공 졸업

Solo Exhibitions 스페이스오뉴월(2016), 오뉴월이주현(2015), 신도문화공간(2015) 등 **Group Exhibitions** <Neue Empiriker-Station Moves> (자하미술관 2016), <NURTUREart Benefit>(브루클린 보일러피에로가갤러리 2015) 등 **Residencies** 뉴욕 우드스탁 버드클리프 가이드(2011) 등

Current Post 뉴욕 스톨오브비주얼아트 겸임교수 **Address** www.jaewooklee.com



예술, 경계 가로지르기 동시대 예술은 다양한 학문과의 교차를 장려한다. 이러한 시도들은 음악과 무용 과학, 심지어 물리학과 생명과학 철학 문학 엔지니어링 등에서 영감을 이끌어 내며, 서로 다른 지식의 형태가 어떻게 세계를 새롭게 상상해 내는 활동적인 실천 가운데서 만날 수 있는지를 탐구한다. 예술의 개념은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다. 질 들뢰즈와 펠릭스 가타리의 존재론적 개념을 쓰자면, 그것은 '기판 없는 신체'로, 여기서 모든 것은 드넓고 무한한 잠재성을 가지고 자신을 재형성하려고 하고, 끝내는 실현될 수 없음에도 다른 무엇이 되려 한다. 동시대 예술은 세계를 이해하는 새로운 방법을 찾기 위해 다른 분야를 끊임없이 연구하는 이런 학제 간 경향성을 예술가로부터 발견한다. 이런 관점에서, 예술은 예술 그 자체 이상의 무엇이 된다. 그것은 경계가 없으며, 유동적이며 영원히 변화하는 개체다. (...) 동시대 예술은 끊임없이 창조적 실천과 조사, 지식 생산, 오브제 제작 사이의 경계를 모호하게 만든다. 예술가-조사자-철학자-과학자는 오늘날 예술의 학제 간 본성을 보여 준다. 이제 학제는 의미의 회로를 생성하기 위해 함께 모인다. 음악을 비롯한 창조적인 기술과, 다른 분야에서 추구하는 지식과 앎 사이가 공유하는 관심의 네트워크를 통해서 말이다. 이런 정신에 따라, 다른 분야에 관한 메시앙의 대규모 조사와 학제 간 시도는 음악적 소리의 주제가 비인간적 세계를 포용할 수 있게 확장했다. 그 과정은 올리비에 메시앙을 위대한 작곡가로서만이 아니라, 음악의 최전선 자체를 새롭게 예측 불가능한 영역으로 확장한 리서치 기반 사운드 예술가로 만든다. /작가

위 왼쪽 · <You Think Yourself in Me> 퍼포먼스 2014
오른쪽 · <꿈속에서 글 쓰는 법을 가르쳐 준 그녀> 퍼포먼스 2015
아래 · <Nothing But A Symphony> 싱글채널 비디오 4분 20초 2014

